

「세종국가전략조찬포럼」

강연요지



세종연구소
THE SEJONG INSTITUTE

(우)461-37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00
Tel. 031-750-7500, 031-750-7618 Fax. 031-723-8800
E-mail:public@sejong.org http://www.sejong.org

[No.2]

현대한국과 그 과제

일시: 2010년 5월 7일 연사: 노재봉 前 국무총리

■ 현대한국의 정의

1. 현대한국은 선진국입니다.

한국은 최빈국에서 세계 선두에 서게 된 경제국가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나 언론기관에서 선진화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는 적당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선진국임에 틀림없습니다. 물질적으로 무엇을 선진국이라고 할 것인가를 판단할 때,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고 외국과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선진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2. 현대한국은 전쟁 위험이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한국은 성격상 세계사의 조류에 가장 예민한 위치에 서 있는 국가입니다. 최근 천안함 사태에서 보듯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둘을 종합하면 현대한국은 선진국이면서도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가장 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당연한 이야기가 망각되어 왔습니다.

■ 현대한국의 발전과정

1. 현대한국은 60여년의 혁명으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6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한국을 설명할 때, 혁명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혁명은 정변 같은 것이 아니라 가치관부터 제도까지 뚱뚱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국의 60년은 혁명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고, 60년의 과정이 곧 혁명이었습니다.

1) 첫 번째 혁명은 민주공화국 체제를 선택한 것입니다.

한국은 해방 후 논리적으로는 잃어버렸던 조선왕조 체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舊)체제로 돌아가지 않고 전대미문의 민주공화국이라는 체제를 만들어 출발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분명 우리 역사상 혁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식으로 나아갔는데, 이 과정에서 이승만 전(前)대통령 개인의 역할은 아무리 과대평가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승만 전(前)대통령은 모든 인텔리가 1차 대전 이후 2차 대전까지 좌경적으로 치우칠 때, 그 환상을 알고 초기일관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했고, 그 당시 인텔리들의 흐름과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입헌주의를 만들어 출범했습니다.

2) 두 번째 혁명은 빙곤해방을 실현한 산업화입니다.

한국을 위시한 모든 근대국가가 빙곤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고민했고, 이것이 한국 60년대에서 겪은 두 번째 혁명이었습니다. 한국은 근대국가를 만들어 놓았으나 근대국가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힘은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농지개혁은 했지만, 그 뒤는 어떻게 할지도 몰랐습니다. 농지개혁을 했지만 식량공급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제 기반은 농경사회였고, 소총 하나도 만들 수 없는 농경사회의 생산력으로는 도저히 근대국가를 운영해나갈 수 없었습니다. 국가의 형태, 즉 제도적 체제는 근대적이지만 국가가 움직여나갈 수 있는 기반은 중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산업화가 가히 혁명인 것은 수천 년 내려오던 농경사회의 경제 기반을 약 20년 동안 한 세대를 통해 완전히 산업화된 사회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1973년에 이루어진 군사원조를 마지막으로 해서 미국의 원조가 종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군사력을 유지할 정도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3) 세 번째 혁명은 민주화입니다.

현대한국은 1987년 민주화이후 근대화가 종결되었습니다. 한국의 근대화는 1961년부터 1987년 사이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민주화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난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정치적인 참여와 공공심 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험양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나아갈 때와 뒤에 서서 나아갈 때, 국민의 위상이 달라지는데, 사람이 쉽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면서도 전통적인 요소가 아주 강합니다. 제가 흔히 쓰는 용어는 가산제(patrimonial)적 정치체제입니다. 민간인들의 권력구조는 가산제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를 할 때, 아침에 찾아가서 밥상에 같이 앉을 수 있어야하고 심하게 말하자면 아침 일찍 가서 신발도 닦아 주고 등산을 가지고 하면 부지런히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권력집단이 형성됩니다. 이것은 마피아집단과 같은 양태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도 선거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몽땅 들어가서 앉아 있습니다. 외부사람이 잘 발탁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가산제적 전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당도 지금의 모습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현대한국의 과제

1. 현대한국은 근대화를 위해 만든 생산독려체제를 서비스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 한국은 민주화에 따른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근대성(modernity)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근대성을 경험한 모든 문제를 한국도 피할 수 없이 경험할 것입니다. 한국이 근대성의 문제를 경험할 것이라면, 예방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이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에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실제로 1987년 이후 단순노동이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이제 머리로 쓰는 노동력이 투입되고 노동력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근대사회의 초기 사회구조를 바꾸는 것이 1987년에 끝났고, 그 뒤부터 근대화 소위 경제발전을 위해 만들어졌던 사고방식이나 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서비스 국가의 양태로 바꿔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현대한국은 더 이상 참고할 발전모델이 없고, 우리 스스로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모델이 없으니, 우리 스스로 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할 협편에 있습니다.

2. 현대한국은 전쟁상태라는 인식을 가지고 안보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북한이 어떤 대상인지 부터 규정해야 합니다. 북한은 주적입니다.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할 것 없이 마치 대북관계를 노사협상 하는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야당을 오래 하던 사람들은 남북협상을 여야협상처럼 생각하는데 정말 문제입니다. 국가의 운명이 달렸다는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북한에 대해 완화조치를 했던 것을 모두 원상복구시켜야 합니다. 또한 돈을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그렇게 해결될 문제 같았으면 별써 해결되고 남았습니다. 그런 환상부터 깨고 나가야 하고, 절대 앞으로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한 정치인을 뽑는 데 있어서 그런 알짜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곳이 어떤 나라인데 완전히 군사력을 안중에 두지 않으려는 것입니까? 한국은 전쟁상태인데 이것을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강대국들이 휩쓸려 가는대로 휩쓸리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평화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의 연속입니다. 남과 북은 지금까지 소위 전북전쟁의 양상을 띠고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전쟁인데 국제법상으로 전쟁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박 전(前) 대통령 시절에 군(軍)이 한편으로 경제건설을, 다른 한편으로 국방이라는 큰 두 가지 짐을 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는 좀 잘살게 되자 안보관계는 머리에서 빠져버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철저한 안보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3. 작은 기업이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대학가는 것 못지않게 대기업에 취직하려는 노력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야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대기업이 물론 있어야 하고 현대경제의 양상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소기업이 발달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예나 지금이나 없다는 점입니다.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는 제철부터 자동차까지 일괄하고 있고, 삼성도 모두 일괄적으로 아웃소싱(outsourcing)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여파가 엄청납니다. 한국은 일을 나누지 않고 대기업에서 몽땅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분업(division of labor)도 되지 않고 경제가 원활하게 굴러가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바꿔서 작은 기업이 발달하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 지지부진합니다.

4. 참여민주주의는 대의정치를 파괴하는 반의회주의 선동입니다.

참여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 대의민주주의라고 했는데 대체 무엇을 대표하는 것인가? 자기 이익만 대표하지 무엇을 대표하는 것인가? 모조리 두드려 부수어야하겠다” 는 뜻입니다. 참여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국가를 이끌어간다는 것인데, 그 본질은 반의회주의입니다. 국민의 직접 참여에 의해서 국가를 이끌어간다는 반의회주의는 북한의 선전과도 연결됩니다. 가령 촛불시위 같은 전대미문의 사기극을 여실히 봤습니다. 완전히 반의회주의운동인데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거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대중이 주(主)입니다.

5. 한국에서는 교육도 문제입니다.

이것이 창의성을 위해 사람을 키우는 교육입니까? 한국의 교육은 불량인간 대량생산 조직입니다. 생산적 교육이 아니고 기계를 생산해 내는 교육입니다. 베토벤, 모짜르트 같은 아이가 있다면, 한국에서는 죽습니다. 그리고 교육문제를 해결하려고 입학시험 제도만 가지고 맴돌고 있는데 문제의 근본에 들어가서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입학시험 제도만 고쳐봐야 교육문제는 해결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골을 파놓고,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 어떻게 교육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

본 요약문은 역사의 의견을 요약한 것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을 경우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